

2019.06.30

NO.4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BIFAN 열기는 식지 않는다

Interview <애프터이미지 포 투모로우> 심영 천 감독과 스티치 추 안무가

Preview <데드 돈 다이> <광과례> <로맨틱 코미디> 의

# 땅의 가치를 하늘 끝까지

땅이 하늘만큼 크다면 우리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땅이 하늘만큼 높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정된 땅의 가치를 하늘처럼 크고 높게 바꾸는 일!  
 MKB개발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지역 개발과 부동산 가치 창출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 값진 성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Make Korea Broader - MKB개발



부천 중동역 2차 푸르지오아파트,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아파트, 송내역 파인푸르지오아파트,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오피스텔/상업시설) 등 총 10개 프로젝트 진행 및 추진 중(주거부문 총 9439세대, 상업시설부문 총 1636명 규모)

#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산다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 세계 3대 광천수 초정리 광천수 · 대한민국 최초 탄산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재 · 세종대왕이 사랑한 물



event

11:00~18:00

판타지아 이벤트 · 너의 목소리가 들려(소리함)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

13:00

마스터클래스, 메모리: 걸작 에이리언의 기원-알렉산더 O. 필립 감독의 다큐멘터리 만들기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

15:00

메가토크 '로코 대해부' CGV부천 5관

17:30

메가토크 '20년의 재회, 그리고 계속되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한국만화박물관

18:00

메가토크 '귀여한 웃음과 만나다' CGV부천 5관

18:30

쿨 풀 시네마 부천시청 잔디광장

20:30

메가토크 '그 영화에 그 관객: <고스트 버스터즈> 리-부트' CGV부천 6관

표지사진 오게옥

staff

- 발행인 배경록
- 편집장 주성철
- 취재팀장 이화정
- 취재 김성훈 송경원 임수연
- 객원기자 이나경 김용진
- 사진 오게옥
- 사진객원 박종덕
- 디자인 김차인애 모보형
- 제작총괄 이지영
- 제작 이준용
- 인쇄 (주)에스제이씨성전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의 사무국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이화정 기자, 임필성 · 김종관 · 전고운 감독, 윤종신(왼쪽부터).

크로스오버적인 순간

6월29일 저녁 6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코리안 판타스틱: 크로스오버'에 초청된 <페르소나> 상영이 끝나고, 기획 윤종신, 임필성 · 전고운 · 김종관 감독과 함께한 메가토크가 열렸다. <씨네21> 이화정 기자의 진행과 함께 한 메가토크에서는 <페르소나> 기획 전반의 과정과 배우 이지은과의 작업기, BIFAN을 통해 최초로 넷플릭스 작품을 극장에서 만난 소감 등을 나눴다.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심재명 명필름 대표, 손희정 문화평론가(왼쪽부터).

90년대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최진실

6월29일 오후 3시 CGV소풍 3관에서는 <마누라 죽이기>(1994) 상영 후 '응답하라 1990's: 기획영화/로코/최진실'을 주제로

한 메가토크가 열렸다. 올해 BIFAN의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웃기는 여자들, 시끄럽고 근사한'을 기획한 손희정 문화평론가의 진행으로 한국영화산업의 한 가운데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획영화의 대표주자 심재명 명필름 대표와 함께했다. 40여 편의 작품을 제작한 심재명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0년대 기획영화의 제작 환경, 제작 사로서의 고충 등의 경험을 나눴다. 또한 심재명 대표는 "대중문화 속에서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캐릭터로 관객들과 만난 최진실은 '시대의 아이콘' 그 자체였다"고 배우 최진실을 회자했다. 90년대 한국영화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중심으로 당대의 한국영화계를 훑으며, 배우 최진실을 기억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글 이나경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굿즈 마니아들 집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찾은 관객을 위한 특별한 판매 행사, '뽀따틱 플라마켓'이 6월29일 오전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천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뽀따틱 플라마켓'은 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는 행사다. 소시민워크 등 영화 굿즈 제작 업체, 옛나인필름 · 미디어캐슬 등 영화 수입사, 필로 · 프리즘오브 등 독립잡지 출판사 등 총 19개 부스가 참여했다.



한국 액션영화에서 시작된 전용의 계보

6월29일 오후 1시,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에서는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1973) 상영 후 유은성 영화평론가의 강연이 진행됐다. "영화 역사상 최초로 영화 한 편을 완전히 전용한 작품"이라는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의 액션영화 <정도>(197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홍콩 영화 <당수태권도>(1972)를 프랑스어로 새롭게 녹음한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강연을 이어갔다.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아시아 장르영화의 '육식'을 찾아라

제12회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이하 NAFF)가 6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열린다. 판타스틱영화 프로젝트 마켓 'NAFF 및 프로젝트'는 수상작에게 산업 관계자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및 제작비와 후반 작업을 지원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시체스영화제의 산업 프로그램 '피치박스', '노르딕 장르 인베이션', 남미 최대의 영화 마켓 '벤틀나 수르'의 장르영화 산업 프로그램 '블러드 원도우' 등에 더해서, 올해 '일본 VIPO(Visual Industry Promotion Organization)을 신설했다. 이번에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로 선정된 국가는 대만이다. 선정국의 장르영화 프로젝트는 NAFF의 지원을 받는다. 신진 영화인들을 위한 장르영화 제작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환상영화학교'는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열린다.



글 임수연 · 사진 부천국제영화제 제공

BIFAN 人

BIFAN의 정보를 널리 공유한다

이은경 홍보팀 온라인홍보



BIFAN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제주도 출신으로 작년에 제주국제관악제에서 홍보 · 초청 · 운영을 도맡았다. 원래 축제에 관심이 많고,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서 BIFAN에 지원하게 되었다.

SNS가 정말 중요한 시대인데, 온라인 홍보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영화제 전에는 1~2개의 키(Key) 행사를 집중해서 올렸다. 영화제 기간인 지금은 당일 아침에 전체 일정을 올린 후, 중요도에 따라 업로드 순서를 결정한다.

영화제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모든 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노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SNS 팔로워 수와 좋아요 갯수가 예년보다 눈에 띄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웃음) 글 이나경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BIFAN 리멤버

영화제의 첫 경험

정병길 · 감독,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심사위원

"올해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심사위원을 맡아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다. (웃음) 데뷔작인 <우리 액션배우다>(2008)를 찍기 전 <갈날 위에 서다>(2005)와 <락큰롤에 있어 중요한 것 세가지>(2006) 단편 두 편을 만들었다. 전자는 액션영화, 후자는 다큐멘터리인데 모두 부천에 초창했다. 영화를 처음 찍던 때라 만들새가 거친데도 관객들이 재미있게 봐 주셔서 신기했다. 부천하면 그때의 감사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싱잉 천 감독, 슈이 추 안무가(왼쪽부터).

# “VR 영상의 새로운 확장을 꾀하다”

VR <애프터이미지 포 투모로우> 싱잉 천 감독과 슈이 추 안무가

VR과 공연이 만났다. 지난 6월28일, 비온드 리얼리티 섹션이 열리는 부천아트벙커B39에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만 출신의 싱잉 천 감독이 연출하고 슈이 추 안무가가 춤을 춘 VR 영상 <애프터이미지 포 투모로우> 상영이 끝난 뒤, 슈이 추가 야외무대에서 영상 속 안무를 그대로 재현했다. 막 VR 장비를 머리에서 벗은 관객들은 “와”하고 감탄했다. 이 영상은 종이로 뒤덮인 방에서 춤을 추는 남자(슈이 추)를 통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건 클라우드에 저장된 메모리일까, 가상현실일까, 궁극의 인식일까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싱잉 천 감독, 슈이 추 안무가를 만나 부천에서 첫 공연을 한 소감부터 물었다.

어젯밤 공연이 근사했다.

싱잉 천 영상 속 안무를 실제 공간에서 공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부천으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았다. 부천아트벙커B39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둘러보았는데 이곳이 과거 쓰레기 소각장이자 공장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영화를 찍은 곳 또한 대만의 오래된 종이 공장이다. 많은 종이들을 아트벙커의 소품으로 배치한 것도 그래서다. 공간적인 연결성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셈이다.

슈이 추 영상을 완성한 뒤 어디서도 공연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 공연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마침 어제 공연할 때 바람이 솔솔 불어와 시청각 뿐만 아니라 오감으로 작품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

싱잉 천 바람까지 계산한 건 아니다. (웃음) 부천에 도착해 이곳에서 리허설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 빛과 바람이 조금씩 달랐고, 그런 미세한 차이가 공연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했다.

이번 작품은 대만 가오슝 필름 아카이브가 VR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싱잉 천 전작에서 어딘가로 떠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예전에 작업한 바 있는 슈이 추와 함께 작업하자고 제안했고, 시나리오를 함께 써 내려갔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기록했고, 이후 영상을 만들다가 지금은 기억이나 추억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시대이지 않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이 메모리인지, 가상현실인지 아니면 궁극적인 인식인지를 질문하고 싶었다.

안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다.

슈이 추 죽음이라는 레이어를 하나씩 걷어내면 결국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게 아닐까. 물리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VR 영상 속 안무를 통해 관객이 그러한 생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면 했다. 예전에 호텔 방에서 한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데 VR 장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야말로 진짜 VR 같은 체험이었다. 그 경험이 안무를 구성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 작품은 남자의 방, 66명의 안무가들이 춤을 추는 종이 공장 등 공간이 중요하다.

싱잉 천 VR 프로젝트가 처음이었던 까닭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관객이 진짜처럼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아이디어와 실제 VR 기술을 접목했을 때 이미지가 달라 배우 배치,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했다. 홍콩의 VR 스튜디오로부터 기술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차기작은 무엇인가.

싱잉 천 극영화 트리트먼트를 쓰고 있다. 이번 영상을 작업하면서 VR과 관련된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다. 어제 공연을 계기로 갤러리든 공원이든 공연 투어를 하는 게 어떻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VR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 앞으로 배워야 할 게 많다. 좀 더 지켜볼 생각이다.

슈이 추 이번 공연을 통해 이 작품이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공연을 다른 곳에서 선보인다면 그곳의 공간에 맞게 새로운 형식으로 진화할 수 있을 거다. 같은 작품이지만 관객은 공간에 따라 각기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 글 김성훈·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전 연령층을 울리는 힘**

〈별의 정원〉 원종식 감독

인간은 빛으로 어둠을 깎아 먹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는 법. 〈별의 정원〉은 우리가 간과했던 진실과 외면했던 어둠을 새삼 직시하는 애니메이션이다. “도시에서 사는 우리는 은하수를 잃어버렸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 사라진 이야기라는 콘셉트에 매력을 느껴 시작했다.” 원종식 감독이 〈별의 정원〉을 시작한 계기는 운명 같다. “우연한 기회에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지원하는 3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흘러보내기 아까웠다.” 장편화의 가능성을 봤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창작 애니메이션이 워낙 드물기도 하고 지역 홍보 영상 같다는 인상 때문에 투자도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작품은 통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왔다. “개봉할 수 있다는 게 작은 기적 같기도 하다. 1995년 〈토이 스토리〉를 보며 이 길을 시작했는데 〈토이 스토리4〉와 함께 극장에 걸린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르다.” 이동 관객에 한정되지 않고 전 연령층을 울릴 수 있는, 결이 섬세한 오리지널 장편 애니메이션 〈별의 정원〉은 그렇게 한국장편애니메이션 시장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곁에 다가왔다. 글 송경원·사진 오계욱



**“좋은 작품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 배우 엄정화

초청작 배우가 아닌 심사위원이다. 엄정화가 부천 초이스: 장편 섹션을 심사한다. 9년 전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단편을 심사한 적은 있지만 장편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책임감 있는 자리지만 영화를 집중적으로 보고 다른 심사위원들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전에 단편 심사했을 때 좋은 작품과 감독을 많이 만나서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주말까지 사흘 동안 부천 초이스: 장편 섹션 상영작 12편을 몰아 볼 예정이다. 감독, 저널리스트로 구성된 심사위원 4명 중에서 유일한 배우라는 점에서 그의 심사 기준 또한 궁금하다. “인상적인 연기나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내되,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를 잘 맞춰가고 싶다. 12편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 다행히도 모두 좋아할 만한 작품인 것 같아 심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루에 많게는 네댓편을 보는 일정이라 졸음 방지와 체력 관리는 필수다. “궁금한 영화는 꼭 찾아서 볼만큼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오래 보는 건 자신 있다. 무엇보다 심사를 즐길 거다. (웃음)” 글 김성훈·사진 오계욱

술만 마시면 잃어버렸던 내일.. 이제는 상쾌하게! 플러스데이

비밀 공장 SECRETFACTORY

**즐거운 오늘 상쾌한 내일**

음주전후 숙취해소 음료



#플러스데이 #숙취해소음료 #새싹보리 #즐거운오늘 #상쾌한내일 #하루가더

상품문의 및 고객상담 (주)에이블 070-8832-1183

등급 Rates

전체 관람가 General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BG 부천체육관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A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BU3 CGV부천 3관 BU4 CGV부천 4관 BU5 CGV부천 5관 BU6 CGV부천 6관 BU7 CGV부천 7관 BU8 CGV부천 8관 SO2 CGV소풍 2관 SO3 CGV소풍 3관 SO4 CGV소풍 4관 SO5 CGV소풍 5관 SO6 CGV소풍 6관 MM 한국만화박물관



**데드 돈 다이**  
The Dead Don't Die

짐 자무시 | 스웨덴, 미국 | 2019년 | 103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6.30 CH 11:00 | 7.2 BU8 20:00 | 7.6 SO4 18:00

무전기가 먹통이 되고, 언제부턴가 밤이 사라졌다. TV에 나온 위기론자들은 극지대의 시추 작업이 지구의 자전 주기를 바꾸고 치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한다. 경찰 클리프와 로니는 이 혼돈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닭 도둑이나 쫓는 경찰들이 다. 마을의 장이사 켈다는 사무라이 검을 휘두르지만 불교를 신봉하는 이상한 존재로, 어쩐지 좀비를 보아도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 소년원의 제로니모는 일찌감치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하면서 좀비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어른들은 그의 말에 관심이 없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바비와 사건 해결에 동참하는 또 다른 경찰 민디, 마을을 찾은 힙스터 무리 등 다양한 캐릭터가 공동묘지를 뛰쳐나온 좀비를 마주한 후 각자의 방법으로 대처법을 찾는다. 영화 내내 흐르는 컨트리풍 노래, 스티질 심슨의 <Dead Don't Die>는 센터빌 마을의 풍경, 뛰지 않고 천천히 거리를 누비는 고전적인 좀비의 액션 스타일, 의도적으로 심심하게 짠 유머를 아우르는 이음새다. 좀비가 와이파이를 찾는다는 농담을 포함해 소비주의에 찌든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감독의 시니컬한 시선이 극 전반을 지배하지만, 주류 자본주의사회에 흡수되지 않은 인물이나 소외된 어린이 캐릭터를 통해 한 가닥 희망도 보여준다.

임수연

대선주조 전속모델 마마무  
MAMAMOO

같이 한잔할까요?  
대선



건강한 음주문화  
대선과 함께해요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광파레 Fanfare

이돈구 | 한국 | 2019년 | 88분 | 코리안 판타스틱: 경쟁  
6.30 S05 13:00 | 7.2 BU6 17:00 | 7.5 S02 11:00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핼러윈데이 영업을 거의 끝날 때쯤, 한 여성 손님이 바에 들어와 데킬라를 주문한다. 그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J다. 바 주인은 J에게 말을 걸지만 J는 그를 상대하지 않는다. 바 주인이 가게 정리를 하는 동안, 위급 환자로 위장한 희태와 강태 두 남자가 갑자기 바에 들어와 강도로 돌변한다. 바 주인은 그를 막으려다가 우발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당황한 희태와 강태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썬은 시체를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강태와 어떤 거래를 하고, 백구를 부른다. 전작 〈가시꽃〉(2013)에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이돈구 감독은 장르영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캐릭터들 덕분에 이야기는 한시도 안심할 수 없고 생생하다. 등장인물 대부분 '나쁜 놈'들이는데 그들의 주도권이 뒤바뀔 때 묘한 쾌감이 작용한다.

김성훈

## 백사전 White Snake

AMP 왕, 자오 지 | 중국, 미국 | 2019년 | 99분 | 패밀리 존  
6.30 MM 13:00 | 7.2 MM 11:00 | 7.6 CH 13:00



백사전은 중국 4대 민간전설 중 하나로 천년을 수련한 흰 뱀 요괴 백소정과 순박한 선비 허선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다. 송나라 때부터 구전된 '백사전'의 설화는 중국 전통 경극을 비롯해 각종 소설, TV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작 되고 있다. 〈백사전〉은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백소정과 허선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룬다. 시대배경도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당나라 시대부터 출발하는 애니메이션 〈백사전〉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라는 테마로 절절한 순애보를 완성한다. 중국 애니메이션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유려한 CG 배경을 바탕으로 붓선을 강조한 수묵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구현한다. 중국 애니메이션의 전통과 할리우드 기술력을 융합한 대표적인 성취라 할만하다.

송경원

## 멜랑콜릭 Melancholic

타나카 세이지 | 일본 | 2018년 | 114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7.2 BU5 11:00 | 7.6 S06 10:30



카즈히코는 도쿄대를 졸업했지만,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해 허송세월을 보내는 중이다. 우연히 찾아가던 목욕탕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카즈히코는 덜컥 목욕탕에서 알바를 시작한다. 하지만 평범해 보였던 목욕탕은 킬러가 사람을 죽이고 심야에 처리하는 장소였고, 살인을 목격한 카즈히코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작년 BIFAN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있었다면 올해는 〈멜랑콜릭〉이다. 타나카 세이지 감독의 첫 장편 〈멜랑콜릭〉은 심야의 살인 목욕탕이라는 독특한 콘셉트 위에 예측불허의 전개로 관객의 허를 찌르는 영화다. 300만 엔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현역 IT업계 셀러리맨 출신인 87년생 감독과 3명의 동갑내기 동료들이 의기투합해 제작했다. 2018년 도쿄국제영화제 최우수 일본감독상 수상작.

송경원

##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

엘리자베스 생키 | 영국 | 2019년 | 78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6.30 BU5 15:00 | 7.5 S04 11:00



〈로맨틱 코미디〉는 10대 시절 로맨틱 코미디의 열렬한 팬이었던 엘리자베스 생키 감독의 에세이적 다큐멘터리다. 그는 장르의 이상적 결말이었던 '결혼'의 실체를 경험한 후 로맨틱 코미디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이 괴리는 여성 관객에게 주로 팔린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기도 했던 장르가 '남성적 시선에서 이상화된' 여성을 솔하게 재현했다는 모순에서 온다. 반면 남성의 폭력은 종종 로맨틱한 행위로 미화된다. 또한 메이저 스튜디오 영화가 중산층 이성애자 백인 중심으로 제작됐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나, 〈로맨틱 코미디〉는 궁극적으로 이 장르의 한계를 말하는 작품이 아니다. 비백인 캐릭터를 내세운 〈빅 식〉(2017)이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2018)의 성과를 언급하며 최근의 흐름을 짚고, 사랑과 인간성을 탐구하는 장르가 가진 항구적 매력을 강조하며 감독의 오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다.

임수연

## 영원한 족쇄 Chained for Life

애런 심버그 | 미국 | 2018년 | 91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6.30 S02 13:00 | 7.2 BU4 11:00 | 7.6 S04 13:00



우리는 왜 공포영화에 매혹되는가. 여배우 마벨은 공포영화에 유럽 거장의 감독이 연출하는 공포영화에 캐스팅 된다. 기쁨도 잠시, 영화의 수준은 물론 연기력 문제와 장애인 배우들을 다루는 방식 등 영화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한 공포영화 세트장을 무대로 한 〈영원한 족쇄〉는 고전 공포영화들을 연상시키는 매혹적인 장면과 색감으로 가득하다. 버려진 병원에서 촬영이 이어질수록 기이한 소문이 나돌고 배우와 스태프들의 불안은 증폭된다. 〈영원한 족쇄〉는 '왜 공포영화에 매혹되는가'로 출발해 '어떻게 불안을 퍼트려나가는가'로 전환되는 영화다. 공포영화 장르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영화는 그 과정에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무너트리며 기이한 감흥을 자아낸다. 공포물에 대한 메타영화이자 애정고백. 우아하고 섬세하다.

송경원

## 저수지의 피크닉 In the Quarry

베르나르도 안토나치오, 라파엘 안토나치오 | 우루과이  
2018년 | 82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6.30 BU4 15:30 | 7.7 S06 15:30



새 소리와 함께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저수지의 풍광을 비추며 시작하는 영화. 알리시아는 새 남자친구 브루노와 오랜 고향 친구인 틴초, 톨라와 함께 저수지에서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수영과 공놀이를 하고, 모닥불을 피우며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은 평온해 보인다. 하지만 알리시아, 브루노, 틴초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의 기류가 포착되며 영화는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거짓말, 의심, 질투 등이 뒤엉키며 이들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피크닉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지며, 악몽의 시간으로 변화한다. 뾰족한 돌, 낚시바늘, 갈고리, 쇠 파이프, 날 선 문자 메시지 등의 장치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의 상황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심리 스릴러물.

이나경 객원기자



1

## 관라스틱하게 주말을 보내는 방법

BIFAN 주말 풍경 스케치

즐길 거리가 가장 풍성하다는 첫 주말. 올해 배우 특별전 '매혹, 김혜수'의 주인공인 김혜수가 금요일 밤의 부천을 뜨겁게 달구면서 그 열기도 배가 됐다. 영화도 보고, 틈틈이 이벤트도 즐길 줄 아는 '만점' 관객의 바쁜 발자취를 기록했다.

글 임수연, 김용진 객원기자 · 사진 오계옥, 박종덕 객원기자



2



3



4

- 1 영화제의 꽃, 야외상영. 별빛을 지붕 삼아 <별의 정원>을 관람중인 관객들.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여름밤의 추억.
- 2 숨가쁜 격전의 현장을 포착!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는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집니다.
- 3 축제의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는다. 한밤에도 이어지는 주말의 티켓팅 행렬. 판타스틱 영화와 함께 더위를 잊어보자!



5



6

- 4 <타짜>로 맺어진 인연 이렇게 깊어요.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에 마련된 '전시로 만나는 배우, 김혜수'에서 포착된 배우 김혜수와 <타짜>로 호흡을 맞춘 최동훈 감독.
- 5 VR과 퍼포먼스의 신박한 결합!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공개된 VR 작품 <애프터이미지 포 투모로우>를 경험중인 관객들의 모습. VR이 종료된 후 주인공인 안무가 슈이 추가 영상 속 안무를 눈 앞에서 재현.
- 6 BIFAN에 현장 커피차가 떴어요! 메가토크 관람객에게 무료 커피를 쓴 배우 김혜수. 연기의 폭만큼 나눔의 폭도 무한정.
- 7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극장 가는 법. 매진알림으로 가득한 주말의 상영 시간표 안에서 티켓 구하기!
- 8 BIFAN 패스포트 챙기셨나요? 이제는 BIFAN 극장 통과 절차가 된, 관람 후 스탬프 찍기. 10편의 스탬프에도 도전하세요~



7



8





## “나에게 매혹을 주는 영화를 선택한다”

메가토크 ‘매혹, 김혜수’ 지상 중계

‘매혹, 김혜수’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인 배우 김혜수에게 BIFAN이 붙인 수식어 ‘매혹.’ 이보다 김혜수 배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지난 28일 저녁 8시 30분 부천시 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메가토크에는 배우 김혜수와 그와 함께 작업해 온 <타짜>(2006)의 최동훈 감독, <씨네21>의 김혜리 기자가 진행자로 참석했다. 33년이라는 연기경력이 주는 단단한 연기 철학, 한편으로 겸허한 화법은 관객들을 또 한번 매혹하기에 충분했다. 질의응답 시간, 관객들의 사랑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팬심 가득한 현장을 담았다.

**김혜리** 2019년 현재, <타짜>는 어떤 의미인가.

**최동훈** 아직도 <타짜>를 못 벗어났다. <암살>(2015)이 개봉했을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게 <타짜> 너무 잘 봤다고 한다. (웃음) 지금 보니 다소 거친 부분도 있고, 아주 긴박하게 영화가 흘러간다. 30대때 내 성격이 영화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다.

**김혜수** <타짜>가 없었다면 이런 특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거다. 연기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준 영화다. 그 전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지만, 내게 주어진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단조

로운 작품들과 동어반복적 캐릭터들. 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것 뿐인가 싶어 자괴감도 들었다. 그때 이 영화를 만났다. 배역을 통해 최초로 성취감을 느꼈던 영화다.

**김혜리** 정마담은 이외로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 정마담이 평경장(백윤식)을 살해한 동기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고니(조승우)와 달리 그녀의 과거도 다뤄지지 않는다.

**최동훈** 정마담이 내레이션을 통해 극을 지배하는 구조의 영화다. 그녀에 관해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그 구조가 깨진다고 봤다.

**김혜수** 개봉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감독님이 구상한 정마담과 내가 해석한 정마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대사도 한 예다. 나는 이것이 정마담의 허영을 대변하는 대사로 생각했는데, 설정상 실제로 이대를 나온 여자였다. (웃음)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연기를 통제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가. 그럼에도 나온 좋은 결과물을 보면 영화 속에서 배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스크린에서의 연기는 촬영, 편집, 미장센 등과 결합해 새로운 것으로 태어난다. 영화 속 캐릭터는 배우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김혜리** 김혜수는 클래식한 스크린 스타다. 그 외모와 분위기 덕분에 영화 속에서 다른 사람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런데 의외로 필모그래피에 ‘양상블 영화’가 많다.

**김혜수** 실제 작품을 고를 때는 그게 양상블인지, 원톱 영화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시나리오가 내게 매혹을 주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게다가 영화 자체가 협업이지 않나. 협업의 시너지는 언제나 기쁨이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로 영화를 판단하게 될 것 같진 않다.

글 김용진 객원기자 · 사진 오계옥

# 커피와 영화가 만나는 그곳



“ 문화예술인 소자본 창업 컨설팅 ”

문의

010 7671 7008 / 080-7593-7005

페이스북에 “빈스로드”를 검색하세요  
<https://www.facebook.com/빈스로드-829223077154175>

● Event

	1	2	3	4	5
<b>CH</b> City Hall, Main Theater (2F)	<b>301</b> 11:00 ~ 12:43 데드 돈 다이 <b>The Dead Don't Die</b> 103min (15)	<b>314</b> 13:30 ~ 16:28 <b>GV</b> 트랩: 디렉터스 컷 <b>Trap: Director's Cut</b> 178min (18)		<b>338</b> 18:00 ~ 19:38 <b>GV</b> 나만 없어 고양이 <b>Hello, My Cat</b> 98min (G)	<b>351</b> 21:00 ~ 22:31 고스트 마스터 <b>GHOSTMASTER</b> 91min (15)
<b>MM</b> Korea Manhwa Museum	<b>302</b> 10:30 ~ 12:21 아빠는 악역 레슬러 <b>My Dad is a Heel Wrestler</b> 111min (G)	<b>315</b> 13:00 ~ 14:39 백사천 <b>White Snake</b> 99min (G)	<b>327</b> 15:00 ~ 16:13 <b>GV</b> 꼭두 이야기 <b>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b> 73min (G)	<b>339</b> 17:30 ~ 19:07 ●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 메가토크 <b>Memento Mori</b> 97min (12)	<b>352</b> 21:00 ~ 22:35 드레드아웃 <b>DREADOUT</b> 95min (12)
<b>FA</b> City Hall, Fantastic Cube (1F)	<b>303</b> 10:30 ~ 12:13 바람피기 좋은 날 <b>A Day for an Affair</b> 103min (18)	<b>316</b> 13:00 ~ 14:33 ● 메모라: 걸작 에이리언의 기원 + 마스터클래스 <b>Memory: Origins of Alien</b> 93min (12)		<b>340</b> 18:00 ~ 19:40 <b>GV</b> 영심이 <b>Young-Shim</b> 100min (G)	<b>353</b> 21:00 ~ 22:41 달링 <b>Darlin'</b> 101min (15)
<b>SO2</b> CGV Sopoong 2	<b>304</b> 10:30 ~ 12:19 차이나타운 <b>Coin Locker Girl</b> 109min (18)	<b>317</b> 13:00 ~ 14:31 <b>GV</b> 영원한 족쇄 <b>Chained for Life</b> 91min (12)		<b>341</b> 18:00 ~ 19:16 <b>GV</b> 물비늘 <b>Mulbineul</b> 76min (15)	<b>354</b> 21:00 ~ 22:44 더티 갓 <b>Dirty God</b> 104min (15)
<b>SO3</b> CGV Sopoong 3	<b>305</b> 10:30 ~ 12:17 아빠? <b>Is That You?</b> 107min (15)	<b>318</b> 13:00 ~ 14:17 투어리즘 <b>Tourism</b> 77min (G)	<b>329</b> 15:30 ~ 17:10 더 룸 <b>The Room</b> 100min (15)	<b>342</b> 18:00 ~ 19:33 30년만의 재회 <b>Come to Daddy</b> 93min (18)	<b>355</b> 21:00 ~ 22:30 아수라 <b>Achoura</b> 90min (12)
<b>SO4</b> CGV Sopoong 4	<b>306</b> 10:30 ~ 11:49 <b>GV</b> 단편 걸작선 10 <b>Short Films 10</b> 79min (15)	<b>319</b> 13:00 ~ 14:37 <b>GV</b> 단편 걸작선 4 <b>Short Films 4</b> 97min (15)	<b>330</b> 16:00 ~ 17:28 늑대인간 <b>Werewolf</b> 88min (15)	<b>343</b> 18:00 ~ 19:21 <b>GV</b> 작은 방안의 소녀 <b>The Girl in a Tiny Room</b> 81min (15)	<b>356</b> 21:00 ~ 22:46 <b>GV</b> 아니아라 <b>Aniara</b> 106min (18)
<b>SO5</b> CGV Sopoong 5	<b>307</b> 10:30 ~ 11:55 <b>GV</b> 단편 걸작선 12 <b>Short Films 12</b> 85min (15)	<b>320</b> 13:00 ~ 14:28 <b>GV</b> 판파레 <b>Fanfare</b> 88min (18)	<b>331</b> 15:30 ~ 17:14 에리카 38 <b>Erica 38</b> 104min (15)	<b>344</b> 18:00 ~ 19:52 소름 <b>Gooseflesh</b> 112min (18)	<b>357</b> 21:00 ~ 22:59 나이트메어 시네마 <b>Nightmare Cinema</b> 119min (18)
<b>SO6</b> CGV Sopoong 6	<b>308</b> 10:30 ~ 11:45 단편 걸작선 15 <b>Short Films 15</b> 75min (15)	<b>321</b> 13:00 ~ 14:37 <b>GV</b> 단편 걸작선 5 <b>Short Films 5</b> 97min (15)	<b>332</b> 16:00 ~ 17:30 더 클리닝 레이디 <b>The Cleaning Lady</b> 90min (18)	<b>345</b> 18:00 ~ 19:35 <b>GV</b> 더 파이터 <b>The Fighter</b> 95min (12)	<b>358</b> 21:00 ~ 22:25 <b>GV</b> 토막 살인범의 고백 <b>A Young Man with High Potential</b> 85min (18)
<b>BU3</b> CGV Bucheon 3	<b>309</b> 10:30 ~ 12:06 <b>GV</b> 단편 걸작선 2 <b>Short Films 2</b> 96min (15)	<b>322</b> 13:30 ~ 14:59 <b>GV</b> 단편 걸작선 6 <b>Short Films 6</b> 89min (15)	<b>333</b> 16:00 ~ 17:11 로봇 단편 컬렉션 <b>Robot Short Film Collection</b> 71min (G)	<b>346</b> 18:00 ~ 19:31 <b>GV</b> 더 풀 <b>The Pool</b> 91min (12)	<b>359</b> 20:30 ~ 22:27 <b>GV</b> 21세기 소녀 <b>21st Century Girl</b> 117min (12)
<b>BU4</b> CGV Bucheon 4	<b>310</b> 10:30 ~ 12:11 빅 브라더 <b>Big Brother</b> 101min (G)	<b>323</b> 13:00 ~ 14:25 <b>GV</b> 부천 초이스: 단편 1 <b>Bucheon Choice: Shorts 1</b> 85min (15)	<b>334</b> 15:30 ~ 16:52 저수지의 피크닉 <b>In the Quarry</b> 82min (15)	<b>347</b> 18:00 ~ 19:57 <b>GV</b> 버드 케이지 <b>Bird Cage</b> 117min (18)	<b>360</b> 21:00 ~ 22:22 살인마를 키우는 여자 <b>The Woman Who Keeps a Murderer</b> 82min (18)
<b>BU5</b> CGV Bucheon 5	<b>311</b> 10:30 ~ 11:38 <b>GV</b> 단편 걸작선 16 <b>Short Films 16</b> 68min (15)	<b>324</b> 12:30 ~ 13:56 <b>GV</b> 부천 초이스: 단편 2 <b>Bucheon Choice: Shorts 2</b> 86min (15)	<b>335</b> 15:00 ~ 16:19 ● 로맨틱 코미디 + 메가토크 <b>Romantic Comedy</b> 79min (G)	<b>348</b> 18:00 ~ 19:21 ● 하지만 나는 차이리더예요 + 메가토크 <b>But I'm a Cheerleader</b> 81min (15)	<b>361</b> 21:00 ~ 22:46 에어포칼립스 <b>Airpocalypse</b> 106min (G)
<b>BU6</b> CGV Bucheon 6	<b>312</b> 10:30 ~ 12:10 귀신 상담사 <b>Eerie</b> 100min (12)	<b>325</b> 13:00 ~ 14:59 고비의 전설 <b>The Legend of Gobi</b> 119min (G)	<b>336</b> 15:30 ~ 17:02 <b>GV</b> 헬 홀 <b>Hell Hole</b> 92min (15)	<b>349</b> 18:00 ~ 19:21 토시마엔 괴담 <b>Toshimaen: Haunted Park</b> 81min (12)	<b>362</b> 20:30 ~ 22:26 ● 고스트 버스터즈 + 메가토크 <b>Ghostbusters</b> 116min (12)
<b>BU8</b> CGV Bucheon 8		<b>326</b> 13:00 ~ 14:36 <b>GV</b> 단편 걸작선 7 <b>Short Films 7</b> 96min (15)	<b>337</b> 15:30 ~ 17:18 모뉴먼트 <b>Monument</b> 108min (15)	<b>350</b> 18:00 ~ 19:34 운전 강사의 특이한 비밀 <b>Extra Ordinary</b> 94min (15)	<b>363</b> 21:00 ~ 22:21 <b>GV</b> 아빠의 효녀 조이 <b>Daddy's Girl</b> 81min (18)

등급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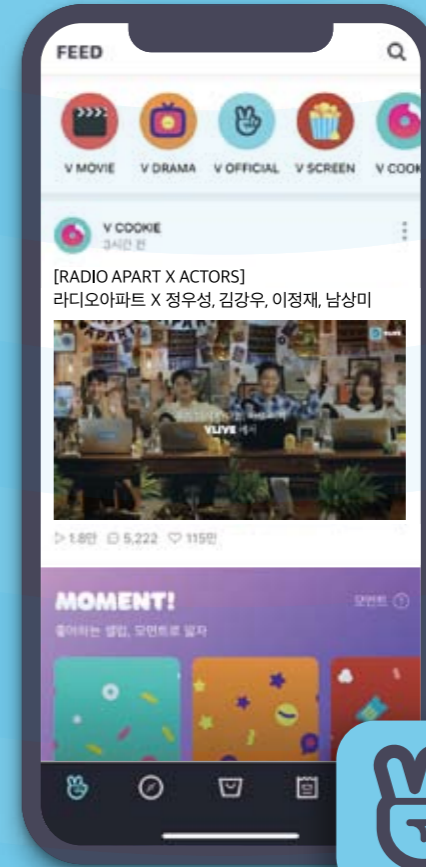
- General
- 전체 관람가 (G)
- 12세 이상 관람가 (12)
- 15세 이상 관람가 (15)
- 18세 이상 관람가 (18)
- Under 12 not admitted
- Under 15 not admitted
- Under 18 not admitted

야외상영 Outdoor Screening

- 20:00 FREE
- 아이 캔스피크  
I Can Speak  
119min (12)
- LS  
City Hall,  
Lawn Square

# 우리 다시 만나요, 바로 여기 VLIVE에서

STAR'S REAL LIVE



Google play | App Store





[WWW.CARINGLASSES.COM](http://WWW.CARINGLASSES.COM)